

일 주 문



백남준 10주기 추모재 원명 강남 봉은사 주지 스님은 1월 29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故백남준 선생 10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포교사단 임원연수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1월 30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16년 제9대 포교사단 운영위원 및 임원연수'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보건복지부 승인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은 1월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의 사단법인 승인을 받았다.



제8기 명상학교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은 2월 15일 오후 2시 불교여성개발원 자비실에서 '몸 알고 치유하기'를 주제로 제8기 명상학교를 연다.



KBUF 대학생 템플스테이 박태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2월 19~21일 충주 석축사에서 '2016 KBUF 대학생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공생회, 캄보디아에 2개 학교 건립 익명 불자 2억 원 기부로

지구공공생회가 익명의 불자가 후원한 2억여 원으로 캄보디아에 2개 학교를 지었다. 지구공공생회(이사장 월주)는 캄보디아 따케오 주(州) 쓰레익파피 마을과 웃터민제이 주(州) 동통마을에 각각 '바라밀 초등학교'와 '수다라 초등학교'를 건립했다. 2개 초등학교는 익명의 불자가 BTN 회장 성우 스님을 통해 지구공공생회 측에 후원한 학교건립기금 2억여 원으로 마련될 수 있었다. '바라밀'과 '수다라'란 학교명도 익명의 기부자가 지었다. 아울러 따케오 주와 따케오 주 교육청, 앙꼬레이 군, 앙꼬레이군 교육청, 폭클러면, 쓰레익파피 초등학교 등은 바라밀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8자 간 업무협약을 맺고, 예산 및 기자재를 지원했다. 월주 스님은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완공된 학교인 만큼 바라밀초등학교 학생들은 자비심과 지혜가 넘치는 캄보디아의 동량이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이에 따라 바라밀 초등학교는 6개 교실을 갖추고, 추후 유치원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지혜 성취로 문수보살 목표 삼길”

티베트현밀교학연찬회장 혜능 스님



“부처님의 지혜 그 자체를 인격화 한 분이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에게 기도 하는 것보다 공부로 지혜를 성취하고 문수보살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울산 람림학당에서 티베트현밀교학연찬회를 이끌고 있는 혜능 스님(사진)은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경전을 통한 올바른 수행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티베트현밀교학연찬회장 혜능 스님은 <성 묘길상진실명경>(2만5000원)을 국내 최초로 번역, 출간했다. 혜능 스님은 2005년 10월 달라이라마를 친견한 법인으로 다람살라에 있는 규포 밀교대학에서 수행하며 <성 묘길상진실명경>을 접했다. 이후 번역의 원을 세운 지 10년 만에 세상에 내보낸 결과다. <성 묘길상진실명경>은 티베트불교에서 수지 독송하는 경전 중 하나다. 달라이라마가 세계평화를 위해 관중 범회에서 자주 설하는 '칼라차크라탄트라'와 함께 유일하게 불이탄트라 범주에 속하는 최고의 경전이다. “문수신앙으로 인해 국내에는 수많은

<성 묘길상진실명경> 국내 최초 번역 달라이라마 친견, 티베트서 수행 정진 문수보살 도량에 초판 2000권 범공양 문수암, 문수사가 있지만 문수보살에 대한 경전과 예경문, 성취법, 수행방법 등이 체계적으로 소개된 것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예찬문뿐 아니라 성취문까지 모두 번역해 소개하고 있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진실명경의 계승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주석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 묘길상진실명경>은 제1부 본송에서 티베트어 원문과 음사, 그리고 우리말 번

역을 함께 신고 있으며 담석영의 범본 한역과 석지의 한역본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실어두었다. 2부는 역대 스승들이 찬술한 문수사리 예찬문을 모았으며 제3부에는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성취법을 다뤘다. “밀교의 특징은 실제 수행을 바탕으로 의례화를 합니다. 그래서 신구의(身口意)를 청정하게 할 수 있도록 문수보살님의 수인, 진언 독송, 문수보살님을 마음으로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신구의의 청정함과 문수보살님의 지혜를 얻도록 수행 정진하도록 합니다.” 람림학당은 실제로 1월 10일 봉헌식과 함께 가행정진 입재를 시작해 성도절까지 매일 오전 4시 30분과 10시, 오후 7시 등 하루 세 차례 수행 정진해오고 있다. 앞으로 혜능 스님은 <성 묘길상진실명경>에 관한 구체적인 주석서를 내고, 대중과 함께 수행 정진할 계획이다. 혜능 스님은 해인사 율원장, 직지사 승가대학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도 다람살라 규포 사원(티베트불교 겐록과 밀교대학)과 한국 람림의 마을 보리원, 그리고 영축총림 통도사 람림학당에서 석교과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혜능 스님은 전국의 문수보살과 관련한 도량에 초판 발행한 2000권을 모두 범공양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사찰림 보존 활용에 기여할 터”

제3대 한국사찰림연구소장 윤성이 동국대 교수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 제3대 소장에 윤성이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사진)가 임명됐다. 사찰림 연구기관 한국사찰림연구소(이사장 중수)는 1월 19일 서울 흥천사 관음전에서 정기이사회 및 총회를 열고 윤성이 동국대 교수를 3대 소장으로 임명했다. 윤성이 소장은 동국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환경공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국대 미래인재개발원장, 농림부 기후변화협약대책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국대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윤성이 소장은 “불교계는 한국 전체 산림의 1%에 달하는 막대한 사찰림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라며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불교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2013년 창립한 산림청 등록 민간사찰림연구기관으로 창립 이후 사찰림과 사찰 주변 생태계 등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공사유림산림습원조사사업’ 등 연구와 함께 사찰림탐방단 운영을 통해 사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찰림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정세균 “성역화 불사 일꾼 되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원의 예망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사진) 자승 스님은 “중로지역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추진하는 지역인 만큼 성역화 불사 등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견지동 역사문화 관광자원 조성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중로는 조계사를 비롯한 12개의 전통사찰과 100여개의 크고 작은 사찰이 존재하는 곳이다. 앞으로도 조계사를 핵심 축으로 광화문, 북촌, 인사동 등을 엮는 역사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수 정비사업 등 임기내 성과를 설명한 정 의원은 “일꾼으로 불러주면 열심히 찾아가겠다”며 “10·27법안에 법안 발의 시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하수 정비사업을 진행하듯 성역화 불사에도 막힌 곳을 뚫어달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오등선원, 성역화 기금 1000만원

1월 27일 아름다운동행에 전달



학림사 오등선원(조실 대원, 조계종 원로의원)은 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재)아름다운동행 측에 성역화불사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학림사 주지 서봉 스님은 “학인이 예전에는 100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50명으로 줄었다. 미래의 불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불사에도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군산 성불사, 자비의 쌀 나눔

경암동 주민센터에 30포대



군산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과 신도회 임원들은 1월 27일 군산 경암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비의 쌀 30포대를 전달했다. 성불사는 지난 1984년 창건한 이래 매년 추석과 설을 앞두고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경로당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을 주민센터에 기탁해왔다. 이번에 전달한 쌀은 신도들이 불전에 공양 올린 공양미를 모은 것으로 자비의 쌀 외에 김 등 간단한 반찬거리도 함께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향력있는 CEO로 선정

홍욱헌 위덕대 총장, 27일 수상



위덕대 홍욱헌 총장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TV조선 조선일보 등이 공동으로 선정하는 '2016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돼 1월 27일 서울힐튼호텔 2층 그랜드볼룸서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대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탁월한 인재경영으로 대학 및 지역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CEO를 선정해 주는 상이다. 김주일 기자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세무관계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 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장법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 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정, 법무법인 지명지성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운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